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밑그림

What I am ; A draft to form what I will be

지루한 장마와 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7월이다. 기운을 내고 마음을 활기분하게 가져보려 해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아무 리 주변 환경에 끌려 다니지 않고 소신껏 살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으니 아무래도 심신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이런 나 자신을 추스르며 차 분하게 생각에 빠져본다.

“산은 날보고 산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날보고 말없이 살라 한다.”는 말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내가 노사문제로 지쳐있던 서울시건 축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선 것이 벌써 2달 전이다. 나를 아끼시는 선배들의 만류와 조언을 뒤로 하고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분들의 염려대로 취임 이후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 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지금의 우리 협회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건축경기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저만 가고, 국제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유명 설계자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날로 감소하는 국내 설계 물량을 무시한 당국의 건축사 배출 계획은 우리 회원들의 위기 의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게다가 건축사 자격의 운영도 국제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각도로 변화되고 있다. APEC 건축사회원국간의 상호자격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9월부터는 희망자에 따라 APEC건축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APEC건축사 자격인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건축사 등록원’을 신설하여 건축사의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사 등록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그 외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40년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곧 있으면 ‘건축사등록원협회’, ‘APEC건축사협회’가 새롭게 탄생할지 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원들은 2중, 3중의 경비성 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협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자격 국제 인증제도의 시행에 맞춰 우리 건축사회 회원들도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건축계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의 몸살을 앓고 있다. 건축에 몸담은 지 어느새 30여 년이나 되었지만 일찍이 이러한 변화 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낯설고 놀라운 변화가 시시각각 조여들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협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미래, 한국 건축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 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축을 하나의 종합예술로 보지 않고 한낱 기술로만 치부하고, 건축사를 미를 창조하는 예술인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인으로 보기 보다는 단순한 기술자로만 보려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건축을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은 우리의 구호일 뿐이고,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현실이다.

지난 3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개념을 넘어서서 건축을 하나의 당당한 문화요,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업계의 절박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나는 본다.

건축사 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사회 인지도 면에서 앞서있고, 건축사라기보다는 건축가라고 불리어지기를 선호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한 이러한 토론회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삼삼오오 갈라졌던 우리 건축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하나 분산된 능력을 한 군데로 결집하여 우리 건축사들의 저력을 보여야 한다. “건축은 문화다, 건축사는 사회 문화의 리더다”는 이제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뒤에는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자신있게 물려주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나는,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밑그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곤 한다.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못난 약자만이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통된 숙제가 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중지를 모으고 마음을 합해야 할 때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답답한 마음에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다. 나 자신과 건축사와 협회를 생각하고 있자니 만감이 떠올라 그리 된 것 같다.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 한분 한분도 다 같은 심정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한 다음 정확한 처방전을 가지고 최상의 치료제를 써야 한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여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